

“신행활동 다양화·신도교육 강화 필요”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는 힘인 '신도'를 체계적인 조직으로 일궈내고 신도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도신)은 개별 사찰과 시민사회단체의 사례에서 신도 조직 활성화 노하우를 모색하기 위해 1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직과 활동, 시민사회단체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오관영 사무처장(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 시민운동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과 조직구성을 소개했다. 오 사무처장은 "온라인의 한계를 벗어나 회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취미,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모임을 열고, 이 모임을 네트워크 조직으로 묶어내야 한다"고 밝히며, 시민사회단체

조계종 포교연구실 '신도조직 활성화' 워크숍 개최

에서도 회원들의 조직화가 단체 활성화의 선결 조건임을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원명 스님(삼화사 주지)은 삼화사 신도조직의 사례를 통해, 사찰 신도회의 활동 모델을 제시했다. 현재 삼화사 신도회는 임원진과 거사법회, 방생회, 연등회 등 12개의 실행단체로 이뤄져 있다. 사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정기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신도회 임원은 동해불교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후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자격이 제한된다. 원명 스님은 "신도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도교육을 통해 핵심 신도를 양성하고, 신행·취미 등이 유사한 신도들끼리의 실행단체를 다양

하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행단체 활동과 행사에 사찰이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 나갈 때 신도들의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신도회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도회 사례를 발표한 유수 스님(정도회 대표) 역시 "신도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행의 생활화와 공동수련 및 멤버십 훈련,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행공동체로서의 인식을 기반으로 사회참여를 이끌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때 신도회는 스님이나 법사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를 탈피해 자발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수 불광사 종무실장은 불광사의 신도 조직 체계와 활동을 소개했다. 불광사는 신도조직을 통칭해 '불광법회'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39개의 구법회가 소속되어 있다. 1개의 구법회는 5-6개의 법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법등은 매달 1회 이상 '법등가족모임'을 갖고 있다. 김실장은 "구법회와 법등으로 이뤄진 수직적 조직체계가 불광사 신도조직력의 근간"이라며 "신도조직 활성화의 1차 관건은 법회와 법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임원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 이자범 기획실장은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으로 ▲법회의 활성화와 현대적인 법회 개발 ▲행복-나눔 서비스"를 통한 조직 구성원들의 동질감 강화 ▲구성원들 모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시스템화 등을 꼽았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종단청정위' 유보

준비위 "청정지지 결여"...설치촉구 활동 추진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계 8개 단체들이 요구했던 종단청정위원회 구성이 유보돼 조계종의 청정지지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다. 김희욱 교단자정센터 원장과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등 불교단체 대표들은 11월 28일 기획실장 승원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스님들을 만나 청정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김희욱 원장은 "총무원 집행부가 실무회의에서 확정된 종명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종법과 상충되는 게 많다"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대 스님을 만나 다시 논의하자"고 말하며 청정위를 구성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청정위 구성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법과 합치되는 합리적인 기구 구성을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 뿐"이라며 "불교단

체 대표자스님들은 종헌종법을 재가 실무자들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단의 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 다시 논의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종단청정위원회 준비위원회는 11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단일한 현실인식과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는 총무원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질박한 일기기에 불교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청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정위 준비위원회는 11월 20일 부터 매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에서 '종단청정위원회 설치 촉구 108 기도'를 하며 종단이 청정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고 있어 향후 조계종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일 기자

“불교 상징례 한글통일법요집 활성화해야”

불교 상징례 문화를 중심으로 <한글통일법요집> 사용을 활성화 하자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도신)은 11월 29일,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한글통일법요집 활성화 방안> 주제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박명근(동국대 강사)씨는 '현대불교 상징례 실천방향에 대한 소고'를 통해 불교 상징례는 임종 후가 아닌

임종 전 임종의례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고, <한글통일법요집>과 <연화의식문>, <불광연교의식문> 등 여러 불교 상징례 의식집의 비교를 통해 상징례 절차와 용어 정의 등이 통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불교 상징례를 담담할 수 있는 불교 상징례지도자 육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동섭 기자

개성지역 불교성지순례길 '활짝'

조계종, 5일부터 시범관광

조계종이 오는 12월부터 북한 개성지역 불교성지순례를 시작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2월 5일부터 관음사를 포함한 개성지역 불교유적지를 참배할 수 있는 시범성지순례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11월 23일 개성관광사

업체인 현대아산과 '개성지역 성지순례 시범관광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5일부터 시범관광을 시작한다. 성지순례 동참금은 18만원 선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순례에서는 처음으로 관음사(북한 보물급 33호)를 참배할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970년(고려 광종 21) 법인국사 탄문 스님이 창건한 관음사에는 현재 대웅전과 요사채, 1660년 조성된 7층 석탑

이 있다. 개성지역 불교성지순례는 크게 3코스, '고려/백연포-관음사' 등을, '영릉반'은 영릉사-민속여관-고려박물관 등을 둘러보게 되며 개성공단 견학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초기에는 1코스만 운영될 예정이다.

개성 불교성지순례 하루 관광 가능 인원은 300명이며, 현재 12월 중순까지는 사전예약이 끝난 상태다.(02)3210-1236

여수령 기자

통일논문 현상공모 시상식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12월 6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통일논문 현상공모 시상식 및 제3회 통일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부 개회식, 2부 통일논문 시상식, 3부 통일정책포럼 순으로 열린다.(02)720-0531 김주일 기자

'자비의 전화' 특허 등록

조계종 포교원 부설 불교 상담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자비의 전화(원장 정택)가 특허청으로부터 업무표장에 대한 특허등록결정서(공고번호 42-2007-0048426)를 받게 됐다. 11월 23일 밝혔다. 한편 12월 13일 오후 6시 서울 오선 씨푸드뷰에서 '송년 감사의 날'을 개최한다.(02)737-7378 김광진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주)경인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소비자가격) 입금계좌:기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창송력)

I Love Buddha / 바라지 않는 마음 용정운(www.zenlooon.com)

김재일 이사장의 아름다운 고사

포교원이 수여하는 올해 포교대상 원력상 수상자인 김재일(사)보리 이사장이 수상을 고사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재일 이사장은 11월 28일 후원 회원들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을 통해 "조계종 포교원으로 부터 포교대상 원력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얼떨결에 감사한다고 답했으나, 밤새 고민한 끝에 수상을 사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고사 이유에 대해 "거부가 아닌 단순한 사양이므로 불순한 의도가 없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27일 포교원에 정중히 사양 의사를 알렸다면서 "그동안 불교계가 주는 상을 여러 번 받았는데 이번엔 똑같은 내용으로 상을 또 받는 것은 욕심"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또 "함께 일하는 조재희 사무국장이 비슷한 활동으로 재가연대로부터 올해의 재가 불자상을 받게 되어 있어서 더욱 마음의 짐이 되었다"고 깊은 속내를 털어놓고 고민이 많았음을 시사했다. 김 이사장의 고사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양보의 미덕이 따스한 기운으로 전달된다. 본인이 불교언론인상을 제정한 경험이 있는바 상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더 많은 이들에게 상의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 같다. 수상을 위해 준비를 하며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려는 공명심이 강한 중생들에게 김 이사장의 아름다운 고사는 깊이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쯤 깊이 고민하게도 해준다. 김재일 이사장은 현재 사단법인 보리 이사장, 시민모임 두레생태기행 회장, 조계종 환경위원, 사찰생태연구소 소장, 불교텔레비전 자원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교계 새희망 새미래

(재)한국불교 통합종단 중흥회 창립대법회

[나라위한 불교정책 발표회]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불교계 각종단 고승 대덕스님 그리고 7천만 민족과 불자 사부대중께 아뢰옵니다.

수천년 유구한 불교역사는 한국인의 훈이며, 역사며, 미래입니다. 사부대중 불자는 일어나 수회동참으로 우리 불교를 지켜야 합니다. 존경받는 수행자로 거듭나기위해 우리 승가단체는 풀풀뭇쳐 한 목소리, 한 행동으로 통합 단결하는 화합의 종을 울리며 7천만 민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통합종단으로 중흥회 창립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음을 제방에 선포합니다.

- 통불교 정신으로 뭉친다.
- 결사의 정신으로 정진한다.
- 민족의 정신으로 단결한다.
- 불교가 살아야 한국이 산다.

한국 불교계 통합종단 대표 지도자 합창

한국 불교계 통합종단 대표 지도자

혜정, 운산, 지암, 보현, 법장, 법광, 지공, 법민, 법각, 혜안, 대광, 혜명, 일초, 청호, 해광, 해룡, 능인, 성도, 구천, 해광, 화담, 보각, 덕산, 위산, 학성, 도경, 법륜 (종단대표 일동 합창)

※ 뜻을 같이 하실 각 종단 대표 지도자님 동참바랍니다.

일 시 : 2007년 12월 7일(금) 오후 2시

장 소 : 경남 김해 목화예식장

행정원 : 전 화 055)331-7902
팩 스 055)328-2762
핸드폰 011-801-8197(국장)